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여수 동백원서 캠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종호)은 29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소리면 장애인거주시설 동백원에서 장애인과 청소년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를 진행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보성여관사업단 별교초에 도서 300권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성여관사업단(이사장 안정렬)이 최근 별교초등학교에 도서 300권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별교=김문성기자 kim0686@kwangju.co.

광주시 민관정책워크숍 추진위 워크숍



2013 광주시 민관정책워크숍 추진위원회는 29일 도시철도공사 4층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광주의 생태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영산강사업단, 해남 금호호에 치어 5000마리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안순섭)은 최근 해남군 관계사, 어업인 등과 금호호에 치어 5000마리를 방류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자서전 펴낸 정혜숙 전 전교조위원장

“참교육 위해 걸어온 50년 회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기록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서전을 통해 다음 세대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감내해야겠지만 자서전을 준비하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됐어요.”

정혜숙(여·78) 전 전교조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최근 자서전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일간지에 연재된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더불어 살아온 생명평화의 길'(열화당 출판사)이란 부제를 달고 출간됐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1961년 교사를 시작해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다가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임된 후 전교조 광주지부장, 전교조 부위원장, 전교조 제5·6대 위원장을 지내고, 1998년 광주기계공고에 복직했다가 이듬해 정년퇴임 하기까지,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 민주화에 투신했다.

자서전은 무남독녀로 태어났지만 지난 때문에 배를 풀어야 했던 유년시절, 미군을 따라다니며 과자를 얻어먹다가 혼난 이야기부터 전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겪은 고뇌, 퇴직 후 생생·통일·평화운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일들을 담백한 어조로 차분하게 풀어간다. 자서전에는 정



전 위원장의 강건한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도 담겨 있다.

1981년 11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시 교장 선생님이 직원의 시간에 교사선서문을 나눠줬다. 군사정권은 매일 아침 교사들에게 선서문 낭독을 강요했다. 선서문에는 5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내용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어 선서문에 서명하고

책상에 붙여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법령을 준수한다는 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은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근대 방식을 학교에 강요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를 지워서 붙여놨어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것도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복종만 한다면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는 곧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생을 키울 수 없다는 신념에서 끝까지 반대했다. 자서사를 거부한 정 전 위원장은 이렇게라도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싶었다고 자서전에 밝혔다. 결국 다음 인사발령에서 '의식 있는 교사'로 분류돼 순환배치순서를 벗어나는 '뜻밖의 발령'을 겪는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1999년 교단을 내려왔지만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도 덧붙였다. 엄혹한 현실이 계속 되더라도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양심을 지키는 '참교육'을 이어가는 게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분단 현실에서는 평화화가 안착될 수도, 미래 비전도 꿈꿀 수 없다고 하루 속히 평화통일을 이뤄 동북아 공동체 평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시인 고은·함평출신 소설가 정유정

네티즌 선정 '한국 대표 젊은 작가'



고은 정유정

노벨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시인 고은이 네티즌 선정 '한국의 대표작가'로 뽑혔다.

한 인터넷서점이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제10회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고은 시인이 가장 많은 1만 2788표(16.5%)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소설가 이문열은 1만1897표(15.3%)를 얻어 2위를 차지했으며 소설가 박범신(5619표, 7.2%), 소설가 최인호(5602표, 7.2%), 시인 신경림(5264표, 6.8%)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젊은 작가' 투표에서는 지난 6월 '28'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함평출신 소설가 정유정이 9995표(13.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8808표(11.9%)를 얻은 소설가 김애란이 2위였다. 소설가 천명관(8358표, 11.3%), 소설가 김별아(5090표, 6.9%), 소설가 전경린(4552표, 6.2%)은 3~5위에 올랐다.

'한국인 필독서' 분야에서는 소설가 김진명의 '고구려'가 1만 8024표(24.4%)로 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시·에세이 부문에서는 강세형의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가 가장 많은 1만 1439표(15.1%)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매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홍병희 서울대 교수 초청 '最惠者 포럼'



(사)매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여름 방학을 맞아 31일 오후 4시30분 광주시 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 꿈나무 사회복지관에서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초청해 '최혜자(最惠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 홍 교수는 '창조 미래를 꿈꾸는 특목 과학 이야기-꿈의 물결 그레핀 최초의 발명, 국민 TV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홍 교수는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컬럼비아대학에서 한국인 노벨상 후보였던 김필립 교수와 함께 '그레핀(graphene)'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세계최초로 최대 30인치 그레핀 투명전극을 제작·응용한 3.5인치 터치 패널을 발표했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410-6938, 062-267-885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류현진·소녀시대, 한국 관광 홍보 대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는 류현진(26)과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녀시대 티파니, 태연, 써니가 한국 관광 홍보 대사로 활동한다.

한국관광공사 이창 사장은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류현진과 소녀시대 멤버 3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직접 전달했다. /연합뉴스

인사

- ◆광주대학교
▲ 보건복지교육대학장 정성양 ▲ 인문사회대학장 이희재 ▲ 경영대학장 김일규 ▲ 공과대학장 윤재희 ▲ 문화예술대학장 최덕식 ▲ 총무처장 장기영

“日, 1989년까지 한센인 차별”

이문단 '표 언론인과 대화' 日 방송기자 이노우에 게이코씨

“일본은 한국이 한센인 차별정책을 철폐한 뒤 26년간 시행했습니다.”

이노우에 게이코(일본 구마모토 방송기자)씨는 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최로 열린 '아시아 언론인과의 대화'에 앞서 미리 배포한 '출구 없는 길-한센병으로 살피보는 아시아의 성찰'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녀는 “한국이 1960년대 없었던 한센인

차별정책이 일본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은 뿌리깊은 한센인에 대한 차별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16년 일제가 한센인들을 소독소에 감금했던 격리정책을 지난 1963년 철폐했다.

이노우에 게이코씨의 취재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소독소 한센인들에게 자행했던 인



권유린 행각을 지난 1989년까지 자국민을 상대로 유지했다. 한센인들은 강제나태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신생아가 화장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남성들에 대한 불임수술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아시아 언론인과의 대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을 초청해 아시아 민중들의 삶에 녹아든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교수된 콩고 왕자

음비 토나씨 2학기부터 자율융복합전공학부 강의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국내에서 난민 생활 중인 아프리카 '콩고의 왕자'로 유명한 음비 토나(46)씨를 교수로 초빙했다.

광주대는 29일 영어·프랑스어가 능통한 음비씨를 자율융복합전공학부 교수로 초빙해 2학기부터 인권과 평화 및 외국어 강의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비씨가 부인 넬리(36)씨, 아들 라비(15)·조나단(14)군, 딸 파트리샤(12)·아스

트리드(2)양과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아파트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콩고의 작은 부족 국가인 '키토나'의 왕자인 음비씨는 컨사샤 국립대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와 권세를 누렸던 콩고의 엘리트 출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500만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콩고 내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었다.



주대 총장이 그의 사연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 음비씨 채용을 결정한 것이다.

김혁중 총장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의사를 존중해 교수로 초빙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

- 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산후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 =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사, 복권, 인터넷도박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 = 성요항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 = 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 = 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 = 8월 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복령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 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2013년 광주향교 하계 한문 무료 교육 = 접수는 26일(금) 오후 3시까지, 교육기간은 28일~8월 23일 오전 9시~11시, 초등반(기초한자·사자소학)·중등반(천자문·명심보감), 수강후 수료증 수여 향교 사무실 062-672-7008.
▲꽃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창원 선발 = 발로 볼을 차 흙에 넣는 꽃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저택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진원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 국비지원혜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 광주복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

- 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시 관광진흥과 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 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을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용마 축구클럽 회원 = 건강강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 = 주

- 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김양식장·김광장·선원 일회식 = 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합, 속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과초소 부근 010-8072-2589.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 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부음
▲정기회씨 별세 권·철·용·석·옥 선·보애씨 부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정순씨 별세 선종규·형규·광규·창규(중현)·미숙씨 모친상 = 발인 3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황정화 님(여/44세)
子: 권지훈
未: 권명수
●호실: 401호
●장지: 영락공원
故최용근 님(남/58세)
子: 최성영 女: 최민순
未: 나윤자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신말례 님(남/83세)
子/子婦: 허광영/정호년, 권호/비현자
女/婿: 허광남/황경래
●호실: 201호
●장지: 영락공원
故조희정 님(여/49세)
子: 유정철, 경환
女/婿: 유승희/유인, 수성희
●호실: 102호
●장지: 영락공원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